

향유와 보호의 역설 '은진미륵'의 근현대 역사 경험

신은영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일제 초기부터 1960년대까지 '恩津彌勒'이 주위 사람들 혹은 국가와 맺었던 관계의 변화 양상을 '향유'와 '보호'라는 키워드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① 일제시기 문화재 정책을 해방 이후 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는 한편, ② 현재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화재 향유=문화재 보호'라는 규범의 성립 조건을 분석하여 문화재 향유의 다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일제시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朝鮮古蹟圖譜』를 보면 여타 사찰과 마찬가지로 관촉사 역시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다¹⁾. 그러던 것이 호남철도가 개통되면서 논산역이 만들어지고, 강경에서 군청이 이전해 옴에 따라 관촉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 글의 II장 1절에서는 일제시기 은진미륵을 찾은 사람들의 면면을 탐승단 및 미륵제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탐승과 축제가 은진미륵과 맺는 관계의 성격을 가늠해 볼 것이다.

당시 신문들은 탐승과 축제에 몰리는 사람들을 '人山人海'로 묘사하였다. 애초에

申恩英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한국불교미술사

* 이 글은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 워크숍 「지역사의 단위와 그 외부」(2015. 5. 14)의 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필자의 최근 논저: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의 圖像-尊名 불일치 문제와 '世間」, 『사학연구』117, 2015;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관촉사 측에서는 이렇게 몰려들어 유흥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거나 제지할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 Ⅱ장 2절에서는 1933년 조선총독부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 발표를 계기로 불교도량을 정비하는 한편, 몰려드는 사람들로 부터 은진미륵을 격리·차단하고자 했던 관촉사 측의 움직임에 서술하였다.

해방 이후 논산 지역 사람들에게 은진미륵은 과거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자연적 石像”이나 “종교적인 神聖”이 아니라 “역사적 建造物”로서 그 속에서 조상의 피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것이었다. Ⅲ장 1절에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 은진미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竹岩文人協會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 논의가 불교정화운동 속에서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서술할 것이다.

한편 1955년 정부에서는 일제시기에 寶物로 지정되었던 문화재를 일제히 國寶로 승격시키는 탈식민적 조치 이후, 1962년에는 “세계에 자랑할 민족적 精髓”를 가린다는 명분하에 문화재 재지정을 추진하였다. Ⅲ장 2절에서는 문화재 재지정의 동기와 과정, 그 결과 국보에서 탈락하여 은진미륵이 얻게 되는 새로운 이름인 ‘지방양식’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1 은진미륵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사
높이 18.12m
(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7, 1920, p.867, 圖3160·3161)

Ⅱ. 일제시기 은진미륵의 향유와 보호

1. 탐승, 참배, 미륵제

1911년 7월 대전-연산 간 호남철도가 개통된 후 1913년 5월에 목포 구간이 완성되고, 1914년에는 논산군청이 강경에서 옮겨오면서 “일개 僻村에”¹ 불과했던 논산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그 活氣의 중심에는 “호남의 명물” 은진미륵이² 있었는데, 철도 부설과 지역 중심지 이동에 따라 이제 은진미륵이 서있는 곳은 약간의 시간만 들이면 가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은진미륵을 찾는 발걸음이 부쩍 늘자, 1916년 논산군에서는 관촉사로 가는 도로를 확충하고, 은진미륵 부근에 나무를 심는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하기에 이른다.

논산이라 하면 湖南三巨의 一되는 恩津彌勒으로 世人의 所共知라. 郡廳에서는 同彌勒附近에 躑躅, 萩, 櫻花 등을 滿植하여서 四季의 遊客을 誘致코져 今에 其計劃을 着着 進捗中인고로 他日은 반드시 朝鮮唯一의 大遊園地로 化함은 不遠에 在할지모라. 旅客이 萬一 若干의 時間을 有하면 彌勒은 반드시 一見할 價値가 不無하다 하노라. 論山驛으로부터 彌勒까지 僅히 一里인데 人力車의 便이 有하더라.³

이리하여 유원지로 변한 관촉사에는 “四季의 遊客”들, 즉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과 신문사에서 모집한 탐승객들, 인접한 부여에서 출시한 관광 상품인 ‘부여팔경+은진미륵’ 탐승단 일행들로 북적거렸고,⁴ 식민지 지배자인 조선 총독과 도장관들도 들르는 명소가 되었다.⁵ 이러한 유객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매일신보 논산 분국에서는 매년 단오날을 기해 ‘관촉사탐승회’를 모집하였다.

1 「忠南縱橫記(九)」, 『매일신보』, 1916. 2. 11.

2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은 恩津(논산의 옛 지명)에 있는 미륵부처라 하여 오랫동안 ‘恩津彌勒’으로 불려왔다. 도상적으로 ‘觀音’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상을 도상과 상관없이 ‘彌勒’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도상과 존명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은영,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의 圖像-尊名 불일치 문제와 ‘世間」, 『사학연구』117(2015) 참조.

3 「忠南縱橫記(九)」, 『매일신보』, 1916. 2. 11.

4 「(광고)灌燭寺 探勝會」, 『매일신보』, 1917. 6. 19, 22, 23; 「善成高校生修學」, 『매일신보』, 1920. 10. 17; 「본사 주최 부여탐승단」, 『매일신보』, 1938. 6. 6; 「(광고)扶餘八景·恩津彌勒·公州鷄龍山 探勝團 募集」, 『동아일보』, 1938. 10. 9 등.

5 「道長官 巡視」, 『매일신보』, 1916. 12. 5; 「總督 灌燭寺 觀覽」, 『매일신보』, 1921. 9. 12; 「齋藤總督出張」, 『매일신보』, 1923. 6. 14; 「總督의 南巡」, 『매일신보』, 1923. 6. 2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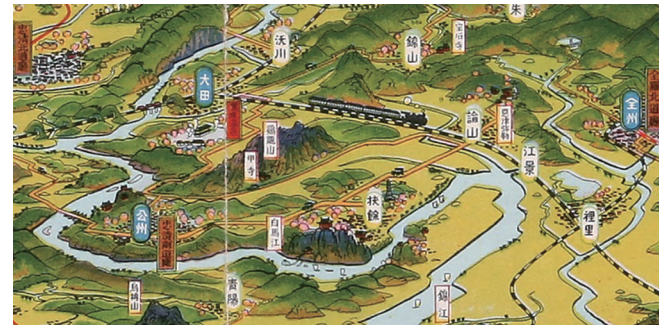
기다리고 기다리던 灌燭寺探勝會는 단양가절을 당하여 거행하게 되었다. 상오 9시에 회원 일동 400여명이 회동하여 황색홍색의 휘장을 꽂고 탐승기를 압세워 출발하였다. 그 행렬 중에는 행화 춘선의 두 기생이 참가하여 가위 만목총중 일점홍의 기관이 되었고 또 이날은 단오날이오 겸하여 본분국의 탐승회가 있으므로 관촉사를 향하는 사람이 연로에 널리였다. 일행은 관촉사 동구암에서 대바위라 일컫는 천연으로 대모양을 일운 기암괴석을 구경하고 절 경내에 드러가는데 유명한 은진미륵은 일행을 반기는 듯 하더라. 절 경내의 풍광을 구경하고 상오 11시 30분부터는 관촉사 수월궁에서 흥행하는 립성구 일행의 신파연극을 관람하고 맛짓 뒤에 청유를 시험하다 오후 7시에 회환하였는데 관촉사 경내는 가위인산인해를 이루었더라.⁶

2
「朝鮮大圖繪」
1929년
원산매일신문사발행
부산근대역사관

탐승단 일동 400여 명은 황색홍색의 탐승기를 앞세우고, 관촉사 앞에 있는 기암괴석을 구경한 후 반야산에 올라 은진미륵을 참배하였고, 관촉사 水月宮에서⁷ 신파극단인 革新團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기생이 끼어있고 신파극도 관람하는 모습이 이색적인데, 오늘날의 관광이나 기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野遊會에 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관촉사에서 벌인 탐승은 아침 9시에 시작하여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끝났는데, “은진미륵은 일행을 반기는 듯”하였다고 한다.

당시 신문에서 이러한 탐승단은 호남명승탐방, 계룡산탐승단, 부여탐승단 등의

⁶ 「灌燭寺探勝會 盛況, 당일의 인산인해」, 『매일신보』, 1917. 6. 27.
⁷ 현재의 彌勒殿이다.



2-1
「朝鮮大圖繪」중
논산·부여부분

을 둘러본 후 논산으로 내려와 은진미륵을 참배하는 코스였다²⁻¹. 1910년대만 해도 논산역에서 인력거를 타거나 걸어서 관촉사로 이동했는데, 매일신보 본사 주최 탐승단 기사가 나오는 1938년 무렵에는 관촉사로 가는 전용버스로 운행되었다.⁹

이러한 遊覽客들 사이사이에 은진미륵을 찾는 정성스러운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

내외국의 유명한 유람객의 지팡이가 항상 끊이지 안이할 뿐 아니라 이 미륵에 불공을 드리러 오는 사람이 서울은 물론이요 멀리 개성, 평양 등지에서도 서로 이어져 이용장한 불상의 앞에는 명복을 비는 선남선녀의 정성스러히 기도하는 그림자가 끊이지 안이 하더라. 이날의 구경갓던 때에도 익산군 함내면의 유명한 조부자의 子婦가 멀리 와서 발원하며 기타에도 두시간 동안에 3~4회의 불공이 있음을 보았더라. 옛지하였던지 동양에 유명한 물건으로 우리 반도의 한낱 자랑할 보배이라. 한번 尋訪하여 그의 거룩한 태도를 접한 이 비상한 재미있는 일이라.¹⁰

“동양 최대의 미륵”은 유람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영험하기도 했던 탓에, 인근 지역은 물론 멀리 경성, 개성, 평양 등지로부터 불공을 드리러 오는 행렬도 끊이지 않았다. 인용문 속의 함내면 조부자는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의 조해영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다른 지역의 사찰들이 그러했듯, 관촉사 역시 청년과 유지들이 모여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公所 역할을 하기도 했다.

⁸ 「扶餘探勝團 申請 期限도 迫到」, 『매일신보』, 1938. 6. 1.
⁹ 「本社 主催 扶餘探勝, 恩津彌勒佛 參拜도 이번 길의 큰 意義, 전용 '빠스로 길 걷는 괴롭습시」, 『매일신보』, 1938. 6. 2.
¹⁰ 「恩津彌勒 參詣記」, 『매일신보』, 1916. 5. 27.

충남 논산군 논산면 재외유학생으로 조직된 논산학우회에서는 (중략) 지난 9일에 당지 명승지인 관촉사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장래사업방침을 토의하고, 來 17일에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터이러는데,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임원은 (후략)¹¹

음력 정월을 이용하여 논산 강경 청년 일동은 유쾌한 마음으로 논산 관촉사로 척소를 정하고 주최하던 연합척사회는 형편에 의하여 정지되었다더라.¹²

은진미륵을 둘러싼 소란스러움의 절정은 이른바 秋季 皇靈祭日을 기해 論山彌勒保勝會에서 개최한 ‘彌勒祭’였다. 남아있는 자료에 따르면 논산미륵보승회는 1913년 9월 23일, “관촉사의 명승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발족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관촉사 경내와 그 부근에 植樹를 하고, 매년 9월 가을 皇靈祭날(23일 혹은 24일)을 기해 彌勒祭를 개최하였다.¹³ 논산미륵보승회원의 개별적 면면은 알 길이 없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논산 군수와 지역 유지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구역 내 기부로 자금을 유지하고, 논산학교조합 관리자가 회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논산미륵보승회에서는 1913년부터 미륵제를 개최했는데, 차라리 미륵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논산미륵보승회를 조직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충청남도 론산 관촉사 미륵대제는 해마다 추계 황령제일에 대성황으로 거행하던 바 금년에는 더 일층 대대적으로 설행을 한다하며 론산미륵보승회에서는 지금 일반 민민에게 기부금을 갖고 한편으로는 관촉사 제반설비에 대단이 분망하다 하며 당 23일에는 철도국에서 참배하는 사람을 위하여 임시열차를 운던한다하며 또 태전(대전)-정읍간 차삭을 반액으로 할인하고 保勝會의 주최로 제반여흥이 있다는데 제일 재미있는 것은 寶探이라 하며 당일은 예년과 갖치 만여명의 참배자가 잇슬터 이라는데 지금은 이왕과 갖치 안이하야 철도의 편이 잇스즉 먼 곳에서 구경오기도 편리하고 론산 정거장에서 내려서는 조선 리수로 5리 밧게 안이되며 인력거를 탈지 라도 왕복 30전이면 넉넉할 터이라. 금년에는 각 지방에서 구경오는 사람이 심히 만

11 「論山學友 定期總會」, 『동아일보』, 1925. 8. 14.

12 「江景 擲柶會 延期」, 『매일신보』, 1920. 3. 7.

13 「論山彌勒保勝會(論山郡)」, 『各道古蹟保存會』 忠清南道(1913~19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지방 고적보존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 연구』(경인문화사, 2009), pp.377-395 참조.

은진미륵을 둘러싼 인파
(『朝鮮忠南論山彌勒灌燭寺境內全景』, 1910~1930년대로 추정)



홀 모양이라 하더라.¹⁴

既報와 가터 오는 24일은 論山彌勒祭이다. 當日은 保勝會에서 寶探, 脚戲 등을 開催한다는 바 沿線의 參觀客을 爲하여 列車도 3할을 하기로 되었다.¹⁵

황령제라는 휴일을 맞아 개최된 미륵제에는 철도국에서 제공하는 임시열차와 운임 할인에 더해 寶探(보물찾기) 및 脚戲(씨름)라는 구경거리에, 만여 명이 되는 인파가 몰리는 대성황을 이루었다¹⁶. 미륵제는 일본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휴행한 1923년을 제외하고는, 1913년부터 해방 이전까지 매해 개최되었다.¹⁷ 과장 섞인 표현이겠지만, 관촉사의 행사에는 “사람이 바다를 이루”었고,¹⁸ 여기에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구별은 없었다. 이러한 때문인지 1920년에는 미륵제 당일 폭탄 투하설이¹⁹ 나돌아 관련자들이 검거될 정도였다.

여하튼 일제시기 관촉사는 불교도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회당이었고,

14 「論山彌勒大祭, 임시열차를 운던 태전정읍간반액」, 『매일신보』, 1916. 9. 23.

15 「論山彌勒祭」, 『매일신보』, 1931. 9. 23.

16 「論山彌勒祭 舉行」, 『매일신보』, 1924. 9. 9.

17 신문기록상 彌勒祭가 마지막으로 보이는 때는 1939년 9월이다.

18 죽암문인협회, 『灌燭寺遺蹟記』(관촉사보승협회, 1949), pp.14-15.

19 「彌勒祭當日 爆彈 投下設」, 『매일신보』, 1920. 9. 28.

또한 유락장이었다. 이러한 遊樂의 성격은 무엇이고, 이러한 성격의 공간은 어떻게 창출될 수 있었을까?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유락의 직접성이다. 은진미륵은 그것이 朝鮮史 혹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연고라는 어떤 본질을 표출하는 매개로서가 아니라, 彌勒이라는 이름으로 논산이라는 장소에 오랫동안 서 있었고, 또 거대하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모이고, 즐기기에 적당한 장소가 되었고, 또한 그렇기에 영험하여 예배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은진미륵은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매개 없이 직접적인 존재로서 향유되었고,²⁰ 어쩌면 이러한 世間 속에서 그 영험함의 발휘를 통해 出世間적 징표를 보여줘야 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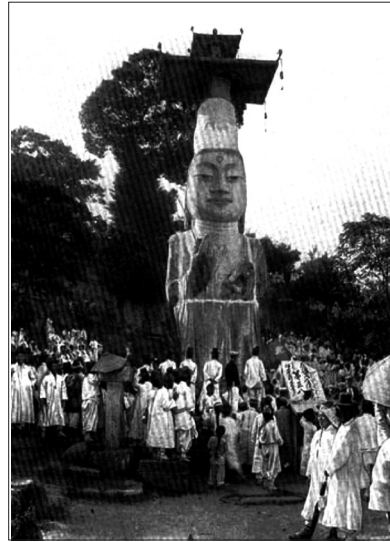
여하튼 식민지기에 이러한 공간이 창출되었다는 것은 특이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특이한 공간의 창출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공동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1913년의 철도 연결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철도와 여행, 철도와 민족적 공간의 상상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주제이지만²¹ 요컨대, 논산역이 생김으로써 은진미륵은 조성 당시 예상도 못했던 참배객들을 대거 맞이하는 신세가 되었다.

둘째, 관촉사의 지역적 公所 및 유락장화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관촉사를 비롯한 사찰들의 미약한 위세이다. 조선시대의 불교정책으로 인하여 사찰들은 밀려오는 세간의 욕망에 대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셋째, 신문 등 인쇄 매체를 매개로 한 지역의 명물 소개도 이러한 흥행에 큰 역할을 했다. 『매일신보』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조선일보』, 『개벽』, 『삼천리』 등에는 지역 명물 소개 글이 주기적으로 실렸는데, 은진미륵은 “동양 최대의 석불”로 널리 상찬되었다. 내셔널한 공간의 상상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지역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외에도 보승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일본의 축제 문화 등의 영향도 지적할 수 있겠다. 요컨대, 일제시기 몇몇 조건들이 합세하여 대규모의 인파가 은진미륵을 찾고, 또한 은진미륵을 찾은 대규모의 인파가 어떤 것의 매개로서가 아닌 은진미륵 그 자체를 직접 향유하는 특이한 공간과 현상이 창출되었던 것이다.



4 은진미륵을 둘러싼 인파 (『내셔널지오그래픽매거진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24. 10, p.356) 사진제공: AMI

²⁰ 향유의 직접성에 대해서는 피에르 노라,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1: 공화국』(나남, 2010), p.34 참조.

²¹ 류시현, 「철도여행을 통한 근대와 민족 현실 체험」, 『최남선 연구』(역사비평사, 2009) 참조.

2. 관촉사의 고적보존사업과 조선총독부의 「보존령」

대규모 인파의 직접적인 향유는 은진미륵으로서의 오랫동안 바라던 바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관촉사나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남아있는 자료의 한계로 이러한 특이한 인파에 대한 관촉사의 대응이나 입장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몇 개의 자료를 징검다리 삼아 실상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일본의 조선 병합을 전후한 시기에 관촉사 주지로 봉직했던 金月山(약 8개월간 재임)은 일본인들이 사찰을 점령하여 日人學校를 운영(水月宮에 설치)하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역대 주지 중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嚴義山(1911~1926년 재임)은 일본인의 사찰 관내 토지 측량을 거부하였다. 이후 시기를 건너 뛰어 1935년 주지 俞寅明(1935~1938년 재임)의 대응이 공문서에 포착되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수많은 인파들이 은진미륵을 직접 향유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는 때마침 1933년에 제정된 조선총독부의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에 의거, 「觀世音菩薩像 1位」를 포함한 관촉사 소유 건조물의 고적보존물 편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昭和 10년 5월 22일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면 관촉사 주지 俞寅明

조선총독 宇垣一成 각하

고적보존물 편입의 건 신청

首題의 건에 대해 별지의 설명서대로 當寺 소유 建造物은 역사가 오래고 그 명성 세상에 널리 퍼져 있지만, 아직 지방 일반의 고적 보존의 관념이 부족한데다가 하등의 유지방책이 없음을 痛感하기를 이기지 못하여 고적보존물에 편입시키고자 하오니, 査閱 후 보존에 편입시켜 줄 것을 신청함.²²

『관촉사유적기』에 따르면 유인명은, 관촉사를 “一大新築하려고 계획을 착착 진행”하였다고²³ 하는데, 그 계획 전체의 면모는 알 수 없지만 관촉사 시설물의 고적보존물 편입 시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 신청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그 신청 동기로서, 그는 “지방 일반의 고적 보존 관념이 부족한데다가 하등의 유지방책이

²² 「古蹟保存物編入ノ件 申請」(1935. 5. 22),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 指定 參考資料 各道報告』忠淸南道,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²³ 죽암문인협회, 앞의 책(1949), pp.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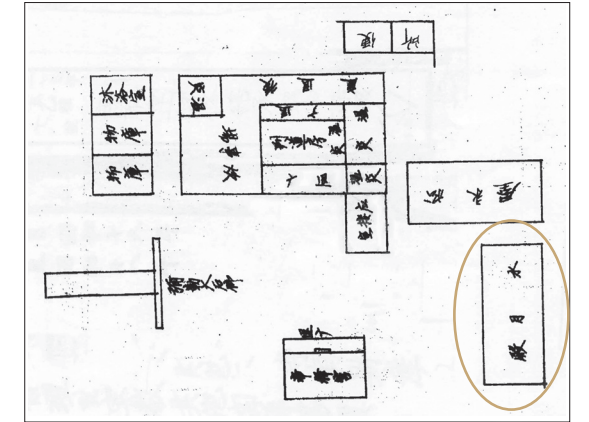
5
관촉사 水月樓
(사진엽서 「朝鮮 湖南線 論
山 盤藥山 灌燭寺 全景」,
1930년대 전후로 추정)
현재의 彌勒殿

없음을 痛感하기를 이기지 못하여 고적보존물에 편입시키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지방 일반의 고적 보존의 관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앞서 묘사한 사람들의 은진미륵에 대한 직접적 향유를 그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그들은 자연스레 은진미륵을 향유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관촉사 주지의 입장에서, 그리고 ‘고적’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보존 관념의 부족에 지나지 않는다. “하등의 유지방책이 없음을 통감”한다는 말은, 위에서 말한 사찰의 미약함 때문에, 人衆의 직접 향유를 막거나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 말이다. 관촉사로서는 하등의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이 때 유인명에게 조선총독부의 「보존령」 발표는 간절히 소망했던 수단이 저절로 손에 쥐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찰령」(1911)이 당시 사찰들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보존령」(1933) 또한 은진미륵을 보호할 명분과 수단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유인명이 1935년 5월에 올린 신청서는 충청남도를 거쳐 같은 해 10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보고되었다. 그렇지만 유인명은 은진미륵의 보물 지정을 보지 못한 채 1938년 병사하고 만다.

유인명의 뒤를 이어 주지로 취임한 사람이 金東招다. 김동초(1938~1943년 재임)는 유인명의 뜻을 이어받아 관촉사 정화에 박차를²⁴ 가하였다. 그는 우선 “이 곳을

²⁴ 관촉사 정화와 관련하여 1935년 조선총독부의 心田開發運動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찰정화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독부는 각 도에 보내는 두 번의 통첩에서 ① 사찰이 유락장으로 이용되게 하지 말 것(1935. 7), ② 승려의 長衫 착용 및 조석 예불 참석(1935. 12) 등을 지도·감독케 하였다. 이는 심전개발운동을 지도할 사찰의 ‘존엄’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인데, 이러한 통첩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고 또 불교 자체의 정화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6
관촉사경내약도 및 水月殿
(「灌燭寺寺有建物修繕承認
申請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1941)
출처: 국가기록원



찾아오는 구경꾼들의 놀이터”였던 水月樓(일명 水月宮)을²⁵, 6 法堂으로 만들었는데,²⁵ 이는 관촉사를 더 이상 遊樂場化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나아가 그는 은진미륵 주위에 성을 쌓아 은진미륵과 사람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였다.

일찍이 灌燭寺에는 그 周圍를 城郭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東西南北 四大石門 있어 그 石門으로 境內에 出入하였었다. 그러나 數百年前(佛敎衰弱時代) 本縣 官家에서는 佛門의 弱함을 利用하여 그 城郭을 허물어서 自己들의 官舍新築하는데 使用하였다. 約十年前까지도 東西兩門이 남아있었으나 이 亦 金東招氏가 尊像周圍에 築城하기 위하여 西門을 허물어서 없앴으니 世人의 遺憾을 돕고 있는 바이다. 尊像周圍에 쌓은 石城은 風致破壞로 말미암아 世間에는 非難의 아우성 소리가 搖動하였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當局의 指令으로 허물게 되었다. 아직도 홀로 남아있는 東門은 本寺의 唯一한 遺跡의 하나이다.²⁶

김동초의 이러한 노력은 실패했지만 관촉사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유인명 이후 관촉사는 스스로 世間을 밀어내어 도량을 정화하는 한편 은진미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명분과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매마침 제정된 총독부의 「보존령」 덕분이었는데, 그 제6조에는 “조선총독은 보물·고

²⁵ 죽암문인협회, 앞의 책(1949), p.13.

²⁶ 죽암문인협회, 위의 책(1949), pp.13-14. 현재 彌勒殿 동편에는 ‘解脫門’이라는 작은 石門이 남아 있는데, 『관촉사유적기』에서 홀로 남아있다고 언급한 ‘東門’으로 추정된다.

표1 일제시기 관촉사 주지 명단 및 주요 업적

이름	취직기간 (관촉사유적기 기준)	주지취직인기일 (총독부 관보 기준)	주요 업적 및 특이사항
金重燮	조선 말엽		업적 미상
金月山	한일합병 전후 (약 8개월간)		日人이 사찰을 점령하여 日人學校 설치
嚴義(儀)山	1911~1926 (약 15년간)	1913. 3. 5 (은진군 화지산면)	日人이 사찰 관내 토지 측량을 권하였으나 거부 역대 주지 중 가장 오래 거주
徐弄山	1926~1932 (약 6년간)	1928. 4. 28 (논산군 논산면)	
洪承鉉 (洪賢男)	1932~1935 (약 3년간)	1931. 10. 3 (논산군 논산면)	별다른 업적은 없으며, 유적기와 관보에 명기된 이름이 다름
俞寅明	1935~1938 (약 3년간)	1935. 9. 9 (논산군 논산면)	* 1935년: 「관촉사 관세음보살상」 보물 지정 신청 관촉사 一大新築 추진 중 病死 마곡사 주지 취임 전후 횡령 사건에 연루
金東招 (香山東招)	1938~1943 (약 5년간)	1938. 5. 30(초임) (논산군 논산면) 1941. 6. 12(재임) (논산군 은진면)	* 1939년: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물 지정 통보, 조선보물 제346호 역대 주지 중 가장 이름이 높음 전등 가설, 건축물 수리, 존상 주위 축성, 사진엽서·그림엽서·서책물 등 간행 해방 이후 고란사 주지로 봉직 중 사망
黃泰鎬	1943~1946 (해방 전후 약 3년간)		國有化되었던 사찰 관내 토지를 寺刹 所有로 함
呂秉祚	1946~1948 (해방 이후 약 2년간)		佛香菴 장만, 건축물 수리
羅仁昌	1949. 현재		

적·명승·천연기념물의 보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일정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필요한 시설을 명하도록”²⁷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유인명에 의해 추진되었던 보물 신청은 김동초의 재임기간인 1939년 9월에 보물 지정 통보(보물 제346호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로 일단락되었고^{표1}, 이를 계기로 관촉사의 탈세속화와 은진미륵의 세간으로부터의 격리 보호가 법제화되었다. 공고롭게도 은진미륵이 보물로 지정되는 해인 1939년부터 ‘미륵제’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보물 지정과 함께 ‘보호’ 받는 처지가 된 은진미륵에 대한 世

²⁷ 이순자, 앞의 책(2009), p.229.

間的 직접적인 ‘향유’가 배제되었던 것은 아닐까? 확인할 수 없지만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보존령에 의지해 은진미륵을 보호하려고 했던 유인명이나 역대 주지 중 가장 이름 높은 이로 칭송 받았지만 재임기간 중 자의든 타의든 皇軍武運長久祈願祭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²⁸ 김동초의 행위가 민족적이거나 반민족적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식민지에서 그들 행위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었다는 차원보다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 단위에서 일어난 행위는 민족-반민족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행위의 단위, 의미화의 단위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일제시기 ‘은진미륵’을 둘러싼 향유의 성격과 이러한 직접적 향유를 배제하여 사찰을 정화하고 고적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서술하였다. 은진미륵을 싸고 도는 이러한 두 차원의 움직임이 해방 이후 어떻게 변주되는지 장을 바꾸어 서술하기로 하겠다.

Ⅲ. 해방 이후 은진미륵, 향유와 보호의 기로

1. 죽암문인협회·관촉사보승협회의 은진미륵 역사화

해방된 지 4년 후인 1949년, 관촉사 아랫마을인 은진면 죽암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竹岩文人協會와 灌燭寺保勝協會에서 『灌燭寺遺蹟記』라는²⁹ 작은 책자를 발행하였다. 저자인 죽암문인협회, 총판으로 되어있는 관촉사보승협회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하는 자료도 없고, 지역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책의 서문을 쓴 金尙勳에 관해서도 알 수가 없었다.

이 책에는 관촉사의 연혁과 고적 건조물 현황, 사적비에 대한 분석, 역대 주지의 업적, 은진의 전설 등 관촉사를 둘러싼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이 망라되어 있다. 혼란스러웠던 시절, 죽암 지역 문인들이 이만한 책자를 간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책에는 해방을 맞은 탈식민 주체들의 은진미륵을 바라보는

²⁸ 「灌燭寺引燈會」, 『동아일보』, 1938. 5. 7.

²⁹ 현재 이 책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에 1권,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1권이 소장되어 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2002년 서지학자 이종학으로부터 이 책을 기증받았다고 한다.

관점 및 은진미륵과 맺은 관계의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石像은 살아 있고 이 싸늘한 돌의 體內에도 脈脈히 祖上의 피는 흘러내리지 않느냐. 自然과 合流하는 人間의 努力에 民族의 文化財産을 發見하는 것은 얼마나 끝없이 光榮스러운 일이라. 이곳을 지나는 어진 손님과 어린 벗들이여, 이 땅이 가진 가지가지 史蹟과 傳說들을 골고로 살핀 다음 다시금 우리 文化의 빛나는 開花에 힘을 합치라.³⁰

해방된 주체들은 은진미륵 속에서 맥맥이 흐르는 조상의 피를 감지하려 하였고, 이러한 연면하는 피의 저력을 미래 “우리 문화의 빛나는 개화”를 가져올 원동력으로 삼자고 주장한다. 은진미륵을 단순한 고적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그 계승자인 과거 조상의 피가 반영되어 있는 매개, 즉 ‘民族의 文化財産’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른바 역사적의식의 매개자로서의 문화재라는 관념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수한 주체에 의해, 즉 탈식민적 상황과 탈식민적 주체에 의해 새롭게 계발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의 祖上은 石佛을 創造하고 祖上들의 피가 脈脈히 흐르는 그 石佛은 自然히 되고 사람들은 自然을 神으로 創造하려는 瞬間 이땅 子孫들은 그가 神이 되기를 실혀하였고 그가 自然이 되기를 실혀하였고 祖上의 따뜻한 피 그것을 要求하며 祖上의 피 그것은 우리들의 生活의 源泉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³¹

석불의 所興性, 즉 그것이 자연과 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우리들 생활의 원천으로 삼는 것은 그것에서 조상의 따뜻한 피를 느끼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오래 파묻혔던 빛과 오래 막혔던 소리”를³² 드러냄으로써 은진미륵을 石像이라는 自然性和 神性에서 구원하여 역사의 세계에 위치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은진미륵 속에서의 피의 감지와 계승의 차원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약탈의 감수성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民族藝術도 36년간 倭政에게 우리 겨레들과 함께 侵略을 當하였다. 侵略

30 죽암문인협회, 앞의 책(1949), pp.1-2.

31 죽암문인협회, 위의 책(1949), p.3.

32 최남선, 「轉載하면서」, 『少年』 3: 8(1910).

者的 손아귀에 들어간 우리 祖上들의 遺業이 荒廢하여질 것은 必然의이었고 그것이 當然한 過程이었을지도 모른다. 날이 갈수록 자꾸만 荒廢되어갔다. 거치러지면 거치러질수록 우리들의 傷心은 커졌고 憤慨는 높아갔다.³³

일제시기 은진미륵이 「보존령」에 따라 보물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길이 열리는 동시에 石標와 木柵 등을 설치, 실제적으로 보호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죽암문인협회에서 모르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폐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침략자의 손아귀”에 들어갔기에 “조상 피”의 계승적 측면이 단절되었다는 심리적 표현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 후 ‘민족이라는 역사적의식의 표상의 매개가 된 은진미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죽암문인협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倭政時에는 所謂 保勝會의 主權로 年年 秋季 皇靈祭날 福票심지노리와 조잡지 파기의 盛事가 있었다. 倭人이 물러간 오늘날 그 중적을 감추었으나 앞으로 新發 足하는 保勝會의 課業이 될 것이다.³⁴

일제시대에는 논산미륵보승회 주최로 미륵제라는 盛事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신발족하는 보승회의 과업이 될 것이었다. 다시 향유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떠들썩한 축제를 벌일 것인지, 아니면 경건한 역사적 대상이기에 보호를 위주로 할 것인지, 향유와 보호를 어떻게 절충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지역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지역에서 중단된 논의의 방향을 결정지은 것은 1954년부터 시작된 ‘불교정화운동’이라는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공개롭게도 관측사는 불교정화운동을 촉발한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관측사에 갔을 때 당황한 주지가 장발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쓰고 양복 위에 장삼을 입고 그를 맞았는데, 그 모양을 본 이승만이 불교계를 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것이다.³⁵ 불교정화운동은 ‘비구=애국’, ‘대처=친

33 죽암문인협회, 앞의 책(1949), p.4.

34 죽암문인협회, 위의 책(1949), pp.14-15.

35 강석주·박경훈 공저, 『불교근세백년』(중앙일보사, 1980), pp.240-241. 이 외에도 이승만이 서울 근교에 있는 奉國寺에 갔을 때 절에서 살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관악산의 한 암자에 갔을 때는 일본에서 돌아온 승려가 일본 여성과 살고 있었는데, 법당에는 天皇의 萬壽無疆과 皇軍의 武運長久를 기원하는 주련이 그대로 걸려 있어서 한국 불교에서 왜색을 일소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일'이라는 구도를 통해 한국불교 전체를 재편하여 지금의 조계종단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을 맺었지만, 다른 것은 차치하고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승만의 불교에 대한 인식이다.

정부에서 극히 관심가지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고대문명으로 명산대찰은 세계의 희귀한 유물이니만치 그 유물과 역사를 보유해 두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의 영예를 높이는 자들에 각각 자기들의 믿는 종교관계는 막론하고 이런 고적을 보유하며 개량해서 세계에 자랑하며 우리 후손에게 보여주어야 할 터인데 (후략)³⁶

이승만은 불교를 종교로서보다는 문화·문화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황무한 사찰과 전각을 다시 수리하고 보유해서 고적을 유지하자는 것이 한 급무”라고 인식하였다. 불교정화운동은 비구승단의 정통성 확보와 아울러 결과적으로 사찰 내부의 문화재 정비와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은진미륵의 입장에서는 실생활과 교섭할 가능성을 차단당하고, 종교적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상실한 채 문화적 재산으로 보호받는 처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7년 이승만은 관측사를 다시 찾았다. 그 당시 정경을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이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생각했던 불교와 사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⁷.

여하튼 이렇게 하여 해방 이후 지역에서 시작된 향유와 보호의 절충에 관한 논의는, 세계에 자랑할 문화재이기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는데, 은진미륵으로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밖에 자랑스럽게 내놓기 위해서는 등급화가 필요했다. 국보의 재지정 동기와 이를 통해 맞은 은진미륵의 운명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2. 국보 재지정과 '지방양식'의 탄생

일제시기 보물로 지정(보물 제346호)되었던 은진미륵은 1955년에 국보로 재지정(국보 제346호)된다. 이리하여 '조선의 보물'은 이제 '한국의 국보'가 된 셈인데, 이때의 재지정이란 과거 '보물'이라는 이름을 단순히 '국보'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후 1963년 1월, 은진미륵은 다시 보물로 재지정(보물 제218호) 되는데, 이는 단순한 이름의 변

되었다고 한다.

³⁶ 이승만 대통령 제1차 유시(1954. 5. 20).



7 이승만 대통령 관측사시찰 사진
1957년 공보처 홍보국 촬영
출처: 국가기록원
(CET0020703_0017_0001),
<http://contents.archives.go.kr>(2016. 3. 9 검색)

(現)보물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1.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제작연대가 오래되어 특히 그 시대의 대표가 되는 것
3. 특히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우수하여 타에 유례가 적은 것
4. 형태, 품질, 제제,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계가 있거나 그가 제작한 것³⁹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전 국보는 급한 대로 보호의 시급성에서 지정한 것이었지만, 이제 뒤죽박죽인 국보를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고”⁴⁰ “우리 민족문화의 대표”를⁴¹ 뽑아낸다는 것이었다. 문화재의 보호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다가 한국적 특성도 가미된 이른바 민족문화의 精髓를 국보로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독립국가의 對他的 문화적 체면이 될 것이었다.⁴²

³⁷ 「第二級 國寶 386點」, 『동아일보』, 1963. 1. 18.

³⁸ 「國寶 再指定」, 『경향신문』, 1962. 10. 3.

³⁹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록(1962. 5. 12).

⁴⁰ 「國寶는 89種으로」, 『경향신문』, 1962. 11. 3.

⁴¹ 「國寶巡禮를 읽고」, 『동아일보』, 1963. 5. 15.

⁴² 1960~70년대 역사의식의 보편과 특수성의 이중구속에 대해서는 장용경,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反植民主體와 歷史의 '正常化」, 『역사문제연구』31(2014) 참조.

표2 1962년 문화재위원회(제1분과)의 국보 재지정 의결 현황

찬성 획득표	문화재명 ⁴³
7인 찬성	남대문, 원각사지 다층석탑, 정림사지 오층석탑, 미륵사지 석탑, 부석사 무량수전, 불국사 다보탑, 경주 성덕왕 신종, 경주 첨성대,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훈민정음,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서산마애 삼존불상
6인 찬성	부석사 조사당, 불국사 삼층석탑, 신라 태종무열왕비,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백율사 금동약사여래입상, 분황사 석탑, 해인사 대장경판, 창녕 진흥왕 척경비, 월정사 삼각팔층석탑, 수덕사 대웅전,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화엄사 각황전, 청자상감운화문호, 동국정운, 이충무공 유물,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계유명전씨 아미타불 삼존석상
5인 찬성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안동 신세동 칠층전탑, 석굴암, 화엄사 삼층사자석탑, 상원사 동종, 표충사 청동합은합, 송광사 목제 삼존불감, 이충무공 난중일기 부서간 첩 입진장초
4인 찬성	고달사지 부도, 증원 탑평리 칠층석탑,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봉정사 극락전, 고선사지 삼층석탑, 부석사 조사당 벽화, 도감사 해탈문, 송광사 국사전,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법주사 석연지, 개국원종공신록, 의성 탑리 오층석탑, 구황리 금제 여래입상, 구황리 금제석가여래좌상, 청동제은상감표류수금문병,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정토사 흥법국사 실상탑, 흥법사 염거화상탑, 이조백자철사포도문호,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쌍봉사 철갑신사탑

흥미를 끄는 것은 그 의결과정이다. 舊국보들에 대해 하나하나 가치 판단을 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논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투표라는 간단한 방식을 통해 단시간 내에 국보 재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지정문화재 목록 중 각 위원들이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제출하게 하였는데, 이 중에서 5인 이상이 선정한 것을 우선 국보로 지정하였다. 당시 위원 7인 전원이 찬성하여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남대문, 부석사 무량수전, 첨성대, 훈민정음 등 12점이었고, 6인이 선정한 것은 감산사 아미타불입상 및 미륵보살입상 등 19점, 5인이 선정한 것은 석굴암 등 8점이었다^{표2, 44}. 회의록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아 은진미륵이 몇 표를 획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5인의 찬성표도 얻지 못했던 것 같다. 이리하여 은진미륵은 속수무책으로 非국보로 전락한 셈이다.

이러한 재지정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문화재위원들의 예술적 무의식이다. 아래 인용문은 문화재위원 중 한 사

⁴³ 문화재명은 회의록을 기준으로 명기하였고, 오류가 있는 곳만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음.

⁴⁴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2~8차, 제12~19차 회의록(1962. 5~12월).

람이었던 김원룡의 은진미륵에 대한 평가인데, 이를 통해 당시 학자들이 얼마나 국제적 기준을 의식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세계문화 속에서의 우리 문화의 참된 위치를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또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실한 의미에서의 선진국가, 선진민족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⁴⁵

은진미륵은 三等身의 비율이며, 전신의 반쯤 되는 거대한 얼굴은 삼각형으로 턱이 넓어 일자로 다문 입, 넓직한 코와 함께 불상의 얼굴을 가장 미련한 타입으로 만들고 있다. 실체는 한 개의 石柱에 불과하고 그 위에 의미 없는 선이 옷 주름을 표현하려고 한다. 이 은진미륵은 서기 968년경의 제작이라는 전설이 있으나, 그 진부는 차치하고 신라의 전통이 완전히 없어진 한국 최악의 조각임은 두말할 것이 없다. 이 미륵에 한국인이 놀라는 것은 그 사이즈 때문일 것이고, 외국인이 감탄한다면 그 원시성 때문일 것이다.⁴⁶

석상에 대한 종교적인 평가는 별도로 치더라도, 지역적·시대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적 기준에서 원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둘째, 예술에서도 구현된 수준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이 특별히 지역적인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중앙(=지역적 중심)에서 만들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보에서 보물로 전락한 은진미륵을 '지방양식'이라고 부른 데에는, 1960년대 내포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국민국가의 국가-지방 관계가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⁴⁵ 김원룡, 「나의 韓國 古代文化 研究 遍歷」, 『한국사 시민강좌』1(일조각, 1987), p.123.

⁴⁶ 김원룡, 『韓國美의 探究』(열화당, 1978), p.130.

⁴⁷ 통일신라시대에 정점을 이룬 한국의 불교미술이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쇠퇴하였다는 가정과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성립한 예술적 優美觀, 즉 예술품이란 세련되고, 단아하고,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의 무의식적 연원은 식민지기 시대적 분위기에 닿아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은진미륵과 같은 고려시대의 거대한 석불들은 쇠퇴의 길에 놓인 조각이라는 위상 밖에 차지할 수 없었는데, 최근 고려시대 불상 양식의 재평가와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에 대해서는 신은영, 「관측사 석조보살입상 연구」(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참조.

IV. 맺음말

이상의 글을 정리하고, 약간의 전망을 덧붙여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도 여타 다른 고적이나 유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견주어 보아도 일제시기 은진미륵에 대한 직접적 향유는 특이한 측면이 있다. 보다 많은 지역적 사례의 미시적 분석이 동반되어야겠지만, 은진미륵이 불러 모은 사람들은 “자연을 지배하는 듯이 창공을 응시하며 대지에 우뚝 서 호을로 우주의 무한을 호흡”하는⁴⁸ 데서 발휘되는 은진미륵의 어떤 종교적 신뢰에 이끌렸을 가능성이 있다. 은진미륵의 보호 하에서 사람들은 탐승과 축제를 마음껏 즐겼을 것이다. 철도와 신문 등 근대적 시설과 근대적 매체들은 은진미륵이 포용할 수 있는 수 이상의 사람들을 관측사로 불러들였고, 급기야 이러한 은진미륵의 성공이 국가적 보호를 초래하는 역설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해방의 감격 속에서 은진미륵은 “역사적 건조물”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향유와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곧이어 불어온 불교정화의 바람 속에서 그 종교성이 탈각된 채 아우라 없는 문화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세계에 자랑하기에는 아름답지도 세련되지도 못하기에, 수준이 떨어진다는 비난의 다른 이름인 ‘지방양식’이라는 규정 속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보물’이라는 이름의 ‘지방양식’ 규정을 다시 문제 삼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은진미륵의 종교성의 탈각이라는 조건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 즉 은진미륵의 場所性을 무화시킨 채 균질적인 국가사 혹은 중앙사라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keywords

은진미륵 Eunjin Mireuk, 향유와 보호 possession and protection,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the order for the preservation of Joseon treasure, scenic spots and places of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monument(The protecting order of Joseon treasure), 論山彌勒保勝會 the meeting for protection of Nonsan Mireuk scenic spots(Nonsan Mireuk Boseunghoi), 灌燭寺保勝協會 the meeting for protection of Gwanchoksa scenic spots(Gwanchoksa Boseunghyuphoi), 지방양식 local style

투고일 2016년 2월 15일 | 심사일 2016년 2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7일

⁴⁸ 죽암문인협회, 앞의 책(1949), p.1.

참고문헌

신문 및 자료

『경향신문 *Kyunghyang Shinmun*』

『동아일보 *Donga Ilbo*』

『매일신보 *Maeil Shinbo*』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회의록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Meeting Minutes*』(1961-1963)

『朝鮮寺刹史料 *Joseon Sachal Saryo*』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The Documents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Museum of Korea*』

朝鮮總督府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朝鮮古蹟圖譜 *Joseon Gojeok Dobo*』7, 1920.

竹岩文人協會 Jukam Munin hyuphoi, 『灌燭寺遺蹟記 *Gwanchoksa Yujuckgi*』, 관측사보승협회 Gwanchoksa Boseung hyuphoi, 1949.

논저

강석주 · 박경훈 Kang, Seokju · Park, Kyunghoon, 『불교근세백년 *A Study on the One Hundred Years of the Korean-Buddism*』, 중앙일보사 Seoul: Joongangilbosa, 1980.

關野貞 Sekino Tadashi, 심우성역 Shim, Wooseung, trans., 『朝鮮美術史 *The Arthistory of Joseon*』, 동문선 Dongmunseon, 2003.

김광식 Kim, Gwangsik,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The Study of Modern Korea-Buddism History*』, 불교시대사 Seoul: Bulkyosidaesa, 2006.

김원룡 Kim, Wonyong, 『韓國美의 探究 *A Study of Korean Art*』, 열화당 Seoul: Youlhwadang, 1978.

김원룡 Kim, Wonyong, 『한국사 시민강좌 *The Citizens' Forum on Korean History*』1, 일조각 Seoul: Ilchokak, 1987.

류시현 Ryu, Sihyun, 『최남선 연구 *A Study on Choi Namseon*』, 역사비평사 Goyang: The Critical Review of History, 2009.

신은영 Shin, Eunyong, 「관측사 석조보살입상 연구 *A Study on the Standing Stone Bodhisattva Statue of Gwanchoksa Temple*」,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A.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3.

신은영 Shin, Eunyong, 「관측사 석조보살입상의 圖像- 尊名 불일치 문제와 ‘世間’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Icon and the Name of the Standing*

Stone Bodhisattva Statue of Gwanchoksa Temple and the Earnest Wishes of the People」, 『사학연구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117, 2015.

이순자 Lee, Soonja,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A Study on the Investigations of Historical Sit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경인문화사 Paju: Kyunginmunhwasa, 2009.

장용경 Chang, Yonggyong,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反植民主體와 歷史의 ‘正常化’ The Anti-colonial Subjectivity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History in the Academia of Modern-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역사 문제연구 *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31, 2014.

ABSTRACT

The Modern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Eunjin Mireuk’

Shin, Eunyoung

In this writing, the aspects of the chang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njin Mireuk’ and the surrounding people and the state were approached through the key-words of ‘possession’ and ‘protection’.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make a critical viewpoint regarding the generally accepted one of the possession of a cultural properties = th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With the opening of the Honam Railroad that passes the Nonsan Station, the visits to the Gwanchoksa Temple started being vigorous. And at the Maitreya Festival, the people overcrowded.

For the Gwanchoksa Temple, the problem was that the too big crowd can destroy the Eunjin Mireuk, without any justifications and methods to block the people. With the promulgating ‘The Protecting Order of Joseon Treasure’(1933), the isolation and the blocking of the Eunjin Mireuk began to be possible.

After the liberation, the Eunjin Mireuk has been recontextualized as ‘a historical construction’ instead of a natural stone statue or a religious sacredness in the discussion of Nonsan reign people, which ends without any concrete conclusion due to the sudden war.

In the 1950s, as a result of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the religious constructions of Buddhism lost their religious aura, and they became the cultural properties of the nation. Moreover, in the government’s redesignation of the cultural asset which aim to distinguish the national essences, the Eunjin Mireuk was demoted to being a treasure, as to be ‘the local style’, which is a different name of inferior quality.

The reason why the definitions regarding the Eunjin Mireuk, which are said

to be a local style, must be called into question is because of that it is defined in the conditions in which the religiosity has been gotten rid of and the placeness of the Eunjin Mireuk had been atomized.